



오전 9시  
오전 11시

교회소식

5월의기도

찬 양\*

회중기도

성찬식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파송의 말씀

축 도\*

### 어 린 이 주 일 / 성 찬 주 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박미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전능왕 오셔서(찬 10)

예배자의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예배자입니다

신앙고백

고전 11:23-28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찬 228)

특송 - 주의 은혜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찬 214장 4절)

누가복음 1:5-25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성령과 능력으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찬 484)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미리 준비한 떡과 잔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5월의 공동기도는 **“박미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교회핸드북(주소록)**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주소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가 바뀐 성도님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을 하지 않은 분들이나 새로 촬영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5/1) 촬영이 있습니다. YG와 아동부는 모두 다시 촬영합니다. (담당 - 권혁용, 김희석)
5. 오늘(5/1)부터 **친교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헌신할 분들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큐티책 5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7. 오늘(5/1) 친교시간은 **위원회별 모임**으로 모입니다.
8. 오늘(5/1) **수요 말씀의 삶** 준비모임이 있습니다. 신청한 분들은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 1:30pm / 소예배실(지하)
9. 아동부와 YG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위해 **모금행사**를 가집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10.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자료집**이 외주제작으로 인해서 배부가 다음 주로 한 주 더 연기됩니다.
11.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 321 0608 / PW: 0608
12.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회복과 희망의 5월입니다

이민진 작가의 “Pachinko”란 작품이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2017년에 출간되어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이미 호평과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TV에서 동명의 드라마로 만들어져 전세계에 방영되면서 원작인 소설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4대에 걸친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옮겨가는 한 가정의 삶을 통해, 역사 격변기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왔던 “자이니치” 재일한국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겪은 억압과 착취, 일본에서 재일한국인들이 겪은 멸시와 차별이 잘 드러납니다. 그동안 한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만행과 그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알렸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암울한 역사를 알게 되었고, 현재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갖는 대단한 기여입니다.

그런데 이민진 작가의 부친인 이부춘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속한 동부한미노회의 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작가의 조부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작가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작가 본인도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소설 속에는 성경의 정신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공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같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같은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은 “어린이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다른 이민진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말입니다. 오늘부터 “친교시간”이 다시 시작합니다. 같이 식사하며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역과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친교와 모임을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회복되는 5월이 되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권혁용, 김희원, 차유미

은퇴전도사 정주애

목사 김원재